

이 자료는 7월 1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월 12일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

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- 문의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네트워크실 지명근 실장(044-300-0610), 표한슬 주임(044-300-0613)
- 배포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홍보전략팀 김민철 팀장(044-300-0230), 정민규 책임(044-300-0231)

TIPA-KAIST GCC, 中企 글로벌기술사업화 지원 파트너십 강화

- 7.12(화), KAIST에서 ‘中企 해외 기술수출 지원’ 업무협약(MOU) 체결 -
- 협약 체결 이후, “22년 1차 한-중 기술사업화 컨퍼런스’ 통해 양 국가간의 바이오, 신소재 분야 기업 지원 박차, 올해 11월 2차 컨퍼런스 개최 예정 -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이재홍, 이하 TIPA)이 한국과학기술원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(센터장 최문기, 이하 KAIST GCC)와 12일(화), KAIST 문지캠퍼스 수펙스홀에서 ‘중소벤처기업의 해외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하였다.
-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△ 글로벌 협력사업과 공동행사 추진, △ 국내외 인프라 및 인적자원 교류, △ 글로벌 시장 및 기술 동향정보 공유, △ 주요 사업의 대외홍보 지원 등 협업을 점차 강화해나갈 예정이다.
- 우수한 기술력을 개발하고도 해외판로 확대와 성과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게 해외 협력 네트워크 발굴 및 필수정보 확보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양 기관은 협약식에 이어 2022년 1차 한-중 기술사업화 컨퍼런스를

개최했다. 이번 컨퍼런스에는 중국국제금융유한회사(CICC), 중한 산업기술창신연구원(ITIRI) 등이 참여했으며, 양 국의 바이오, 신소재 분야 총 12개 기업 간 보유기술 발표 및 저명인사들의 주제별 특강이 진행되었다.

- 컨퍼런스 이후에는 한-중 참가기업 간 기술협력 및 기술사업화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, 온라인 기술교류 상담회를 실시했다. 양 기관은 오는 11월에 2차 한-중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.

□ TIPA 이재홍 원장은 “해외기술사업화 지원 전문역량을 갖춘 KAIST GCC와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양 기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되어 기쁘다”며,

- “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한-중 B2B 기술협력 행사를 점차 확대하여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기술사업화와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KAIST GCC 최문기 센터장은 “KAIST GCC의 8년간 글로벌 기술사업화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창업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며,

- “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전했다.

행사 사진

[사진1 : TIPA 이재홍 원장(왼쪽)과 KAIST GCC 최문기 센터장(오른쪽)이 12일 '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기술수출 촉진'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]

행사 사진

[사진2 : TIPA 송재철 PM이 12일 '한중 기술사업화 컨퍼런스'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.]